

## MMPI-2의 대학생활 부적응(Mt) 척도의 타당도: 해군사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유재호	박용두	문경주 <sup>†</sup>	이주영
해군사관학교	연세대학교	마음사랑	연세대학교

MMPI-2의 보충척도인 대학생활 부적응(Mt) 척도는 대학생활의 부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대학생활 부적응 문제를 보이는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조기선별과 치료적 개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이다. 본 연구는 Mt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389명의 해군사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MMPI-2와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실시하였다. Mt 척도는 대학생활적응 척도와 -.40의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대학생활 부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MMPI-2의 임상척도의 설명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대학생활적응 척도에 대해 4%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여 Mt 척도의 유용성 또한 확인되었다. 연구 2에서는 318명의 해군사관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MMPI-2가 실시되었으며, 대학생활 부적응을 측정하는 4가지 지표로 평균학점, 품행점수, 자질평정, 인성평정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Mt 척도 점수는 평균학점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지녔으며, 학년차를 통제하였을 때 품행점수에 대해서도 유의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MMPI-2, Mt 척도, 대학생활 부적응, 타당도

\* 본 논문은 2010년도 「해군해양연구소 국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문경주, 마음사랑, (135-893)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1-14 유한빌딩 4층  
Tel : 02-511-1405, E-mail : kjmoon@maumsarang.kr

최근 30여 년 동안 국내외 대학상담센터의 규모 및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학업, 진로 영역으로부터 정신건강 영역에 이르는 포괄적인 상담 서비스의 제공으로 대학상담센터의 역할 또한 다양화되어 왔다(Guinee & Ness, 2000). 또한 학생들이 보이는 문제의 심각도 및 상담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Robbins, May, & Corazzini, 1985), 대학상담센터의 역할 및 비중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상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으며(이상민, 남숙경, 이미경, 2009), 제한된 시간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면접 및 평가 방법이 필요함이 지적되어 왔다(Bishop, 1990; Dworkin & Lyddon, 1991).

특히 대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검사의 활용은 상세한 초기면접을 대체할 수는 없을지라도 상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통해 상담자는 가장 적절한 치료 장면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상담 혹은 집단상담과 같이 어떠한 상담 방법을 제공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심각한 학생들에게 우선적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위기 개입을 할 수도 있다(Barthlow, Graham, Ben-Porath & McNulty, 2004). 또한 학생상담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개입이 필요한 학생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도 다양한 심리검사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활에서의 부적응 문제를 사전 선별하거나 부적응 문제 유형 및 심각성을 진

단하고 적절한 개입을 결정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면적인성검사(MMPI)가 많이 활용되어 왔다(구본용, 1989; Bubbenzer, Zimpfer, & Mahrle, 1990). MMPI는 문항의 수정, 기준의 개정, 새로운 척도의 추가 등의 요구에 따라 개정판인 다면적인성검사 II(MMPI-2)로 출판되었으며(Butcher, Graham, Ben-Porath, Tellegen, Dahlstrom, & Kaemmer, 2001), 임상집단 뿐 아니라 대학상담센터 및 사설 상담기관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Camara, Nathan, & Puente, 2000). 국내에서도 엄격한 표준화 과정을 거쳐 한국판 다면적인성검사 II가 출판되었으며(김중술, 한경희, 임지영, 이정흠, 민병배, 문경주, 2005), 다양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MMPI-2에는 타당도 척도와 임상척도로 구성된 기본 척도에 재구성임상척도, 내용척도, 보충척도 등이 표준척도로 포함되었다. 그 중 보충척도의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College Maladjustment: Mt)는 대학생활의 부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Mt 척도는 Kleinmuntz(1960)가 MMPI 문항을 활용하여 정서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대학생과 잘 적응하지 못하는 대학생을 구별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Kleinmuntz(1960)는 정서적인 문제로 도움을 받기 위해 심리 클리닉을 방문한 학생들과 교사자격 인증 절차의 일환으로 일상적인 선별검사를 받은 학생들의 MMPI 반응을 비교하여 43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는데, MMPI-2에서는 43개의 문항 중 41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Butcher et al., 2001).

Mt 척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Mt 척도가 적응적인 학생과 부적응적인 학생을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분류할 때의 분할점을 몇 점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Kleinmuntz(1961)는 대학생들 중 정서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온 학생들의 Mt 척도 점수가 진로나 학업 문제로 상담 받으러 온 학생들에 비해 높았음을 보고하였고, Stewart(1994) 또한 적응적인 학생과 부적응적인 학생간의 평균 점수 차이를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없는 일반 대학생에 비해 3회 이상 상담을 받은 학생들의 Mt 척도 점수가 높음이 보고된 바 있다(김정기, 강연욱, 최명식, 1998). 적응적인 학생과 부적응적인 학생을 분류하는 분할점으로는 Kleinmuntz(1961)의 경우 15점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Svanum과 Ehrmann(1993)은 88%의 정확률을 위해 20~26점을, Lauterbach, Garcia와 Gloster(2002)는 96%의 정확률을 위해 31점까지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마다 분할점으로 제시하는 점수는 다소 다르지만, Mt 척도가 적응적인 학생과 부적응적인 학생을 구분하는데 유용한 척도임은 공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Barthlow 등(2004)은 Mt 척도 문항들을 요인 분석하여, 세 개의 해석 가능한 요인을 확인하였다. 첫째 요인은 ‘낮은 자존감’ 요인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부정적인 쪽으로 비교하는 문항들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활력 부족’으로 명명되었는데, 피로감을 느끼고 뭔가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는 문항들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냉소적 태도/안절부절못함’으로 명명되었고, 다른 두 요인들보다는 이질적인 내용들이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부정적인 표현, 흥분 및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나쁜 생각들과 관련된 문항들이 시사되었다. Mt 척도 문항들을 요인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는 ‘자신감의 상실과 주의집중의 곤란’, ‘신체적 건강과 기분상태’, ‘정서적 통제’, ‘불안 및 긴장’, ‘양심 또는 반사회

적 성향’의 5개 요인이 확인되었는데(강연욱, 이민희, 1995), 요인수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Barthlow 등(2004)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요인이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Barthlow 등(2004)은 Mt 척도와 MMPI-2의 임상척도 및 내용척도와 의 상관분석을 통해 Mt 척도가 측정하는 내용이 불안, 주의집중 곤란, 걱정과 염려, 슬픔, 무기력, 피로감,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 자기확신의 부족, 자기 비하 등과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Mt 척도의 예측타당도에 관한 연구들은 높은 Mt 척도 점수가 빈약한 대학생활 적응 및 높은 스트레스와 관련됨을 보고하였으며(Merker & Smith, 2001; Stewart & Cairns, 2002), 우울,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병리 증상과도 관련됨을 보고하고 있다(김정기 등, 1998; Lauterbach et al., 2002; Svanum & Ehrmann, 1993). Barthlow 등(2004)의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평가한 내담자의 행동 및 정신병리 증상과 Mt 척도간에 높은 상관이 보고되었으며, Lauterbach 등(2002)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학업적 행동, 학업 수행, 일반적인 인지적 기능을 포함하는 학업 생활과 Mt 척도 점수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Stewart (1996)는 높은 Mt 척도 점수가 상담의 기간 및 효과와는 관련이 없었음을 보고하였으며, 김정기 등(1998)의 연구에서도 Mt 척도와 학점, 흡연 및 음주량과 같은 행동적인 문제들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기보고에 의한 측정치들과 Mt 척도들간의 상관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담자의 평정이나 객관적인 적응지표를 활용한 연구들은 제한적이며, 그 결과도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

Mt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은 Mt 척도가 대학생들의 주관적인 불편감을 얼마나 잘 예측하고 변별해 주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Mt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Mt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대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불편감 뿐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지표들을 활용하여 실제 학업 수행, 대인관계 적응, 행동상의 문제 등에서도 어려움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학교에서는 학점을 제외하고는 대학생활 적응에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들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 해군사관학교의 경우 엄격한 규율 및 기숙사 생활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대인관계 적응 및 행동상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t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MMPI-2를 실시하고 Mt 척도가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의 학업적 적응을 포함하는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고 예측하는 도구로서의 타당도를 지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 1에서는 Mt 척도와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와의 상관을 통해 Mt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대학생활 부적응을 측정하는데 Mt 척도가 MMPI-2 임상척도의 설명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니는지 확인함으로써 척도의 유용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2에서는 Mt 척도가 학업적 적응, 대인관계 적응, 행동상의 문제 등을 포함하는 객관적인 학교생활 부적응 지표들과의 관련성을 조사해 봄으로써 Mt 척도의 예측 타당도를 확인해 보았다.

## 연구 1

### 방 법

#### 연구 대상

2009년도에 해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년부터 3학년까지의 남녀 학생 404명 중 MMPI-2와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실시한 394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MMPI-2 검사의 방어성을 측정하는 L, K, S 척도의 T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아 검사 결과를 타당하게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에 해당되는 5명(1.3%)의 자료를 제외한 총 389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최종 분석 자료에 포함된 학생은 1학년 139명(35.7%), 2학년 127명(32.6%), 3학년 123명(31.6%)이었으며, 남학생은 353명(90.7%), 여학생은 36명(9.3%)이었다. 남학생의 평균연령은 20.73세(SD=1.05), 여학생의 평균연령은 20.89세(SD=1.06)였다.

#### 측정 도구

#### 다면적인성검사 I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MPI-2)

MMPI-2의 보충척도인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College Maladjustment: Mt) 점수는 한국판 MMPI-2(김중술 등, 2005)의 결과로부터 산출되었다. MMPI-2는 총 5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MMPI-2에서는 8개의 타당도 척도, 10개의 임상척도, 9개의 재구성임상척도, 15개의 내용척도, 15개의 보충척

도 점수가 산출된다. 보충척도 중 하나인 Mt 척도(Klwinmuntz, 1960)는 적응적인 대학생과 부적응적인 대학생의 반응을 비교하여 문항을 구성한 척도로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총 43문항이었으나, MMPI-2에서는 총 41문항이 포함되었다. 미국 표준화 자료에서 Mt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남자 .84, 여자 .86이었으며, 1주일 간격의 재검사 신뢰도는 남녀 모두에서 .90이었다(Butcher et al, 2001). 한국 표준화 자료에서 Mt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남자 .75, 여자 .79였으며, 1주일 간격의 재검사 신뢰도는 남자 .87, 여자 .83이었다(김중술 등, 2005). 본 연구에서 산출된 Mt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남자 .87, 여자 .84로 양호한 편이었다.

#### 대학생활적응 척도

Baker와 Siryk(1984)이 자기보고를 통해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고안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를 토대로 옥경희(2001)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업적응’, ‘인간관계 적응’, ‘정서적응’ 3개의 하위척도가 산출된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여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는 전체 척도에 대해 남자 .86, 여자 .89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의 경우 학업적응 남자 .73, 여자 .74, 인간관계 적응 남자 .74, 여자 .77, 정서적응 남자 .78 여자 .80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절차 및 방법

2009년 9월에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MMPI-2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Mt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대학생활 적응 척도는 MMPI-2 검사가 실시된 후 1개월 이내에 실시되었다. Mt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MMPI-2의 Mt 척도 및 임상척도와 대학생활적응 척도간의 상관을 산출하였으며, 상관 분석 시에는 각 척도의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Mt 척도가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설명함에 있어 MMPI-2의 임상척도의 설명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결 과

Mt 척도 및 대학생활적응 척도에서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scheffé 분석을 실시하였다. Mt 척도 점수에 대해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으며( $F(2,383)=3.67, p<.05$ ), 3학년이 1, 2학년에 비해 Mt 척도 점수가 낮아 대학생활 부적응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대학생활적응 척도에 대해서도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으며( $F(2,383)=3.03, p<.05$ ), 3학년이 1, 2학년에 비해 대학생활적응 척도 점수가 높아 대학생활적응을 보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Mt 척도 및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학년 간 평균 비교

	1학년 <sup>1</sup>		2학년 <sup>2</sup>		3학년 <sup>3</sup>		전체		F	사후검증 scheffé
	M	SD	M	SD	M	SD	M	SD		
Mt 척도	14.21	6.51	14.07	7.24	11.06	6.37	13.17	6.98	4.22*	1, 2>3
대학생활 적응척도	70.54	8.88	69.36	9.36	73.98	9.45	71.24	9.39	3.03*	1, 2<3

\*  $p < .05$

다. Mt 척도와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학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Mt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MMPI-2의 Mt 척도 및 임상척도와 대학생활적응 척도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Mt 척도와 대학생활적응 척도간의 상관은 전체 척도와 -.40, 학업적응 척도와 -.30, 인간관계적응 척도와 -.30, 정서적응 척도와 -.39의 상관을 보였다. MMPI-2의 임상척도 중에서는 2번(D) 척도, 7번(Pt) 척도, 8번(Sc) 척도, 0번(Si) 척도와 대학생활적응 척도간의 상관이 -.30에서 -.32로 다른 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Mt 척도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Mt 척도가 MMPI-2

임상척도의 설명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니는지 확인하기 위해 1단계에서 임상척도 10개의 원점수를 투입한 후, 2단계에서 Mt 척도의 원점수를 투입하였다. MMPI-2 임상척도는 대학생활적응 총점에 대해 15%의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 $F(10,378)=6.69, p<.001$ ), Mt 척도는 임상척도의 설명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4%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F(11,377)=8.27, p<.001$ ).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척도인 학업적응, 인간관계적응, 정서적응에 대해서도 Mt 척도는 2~4%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정서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11,377)=7.27, p<.001$ ).

표 2. MMPI-2 Mt 척도 및 임상척도와 대학생활적응 척도간의 상관 계수

	Mt	1(Hs)	2(D)	3(Hy)	4(Pd)	5(Mf)	6(Pa)	7(Pt)	8(Sc)	9(Ma)	0(Si)
대학생활적응 전체	-.40***	-.27***	-.32***	-.08	-.28***	-.08	-.19***	-.30***	-.30***	-.04	-.30***
학업적응	-.30***	-.21***	-.26***	-.08	-.20***	-.02	-.10	-.20***	-.23***	-.00	-.19***
관계적응	-.30***	-.20***	-.27***	-.07	-.20***	-.06	-.16***	-.21***	-.22***	.02	-.31***
정서적응	-.39***	-.24***	-.26***	-.04	-.28***	-.12*	-.23***	-.32***	-.30***	-.13*	-.26***

\*\*\*  $p < .001$ , \*  $p < .05$

표 3.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R	R <sup>2</sup>	ΔR <sup>2</sup>	F	ΔF
총점	1	임상척도	.39	.15		6.69***	
	2	임상척도, Mt	.44	.19	.04	8.27***	20.68***
학업적응	1	임상척도	.32	.10		4.23***	
	2	임상척도, Mt	.36	.13	.03	5.24***	13.90***
관계적응	1	임상척도	.35	.12		5.19***	
	2	임상척도, Mt	.38	.14	.02	5.68***	9.42***
정서적응	1	임상척도	.37	.14		6.12***	
	2	임상척도, Mt	.42	.18	.04	7.27***	16.25***

\*\*\*  $p < .001$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MMPI-2의 보충척도로 포함되어 있는 대학생활 부적응(College Maladjustment: Mt)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대학생활적응 척도와 관련성을 조사해 보았다. 우선, Mt 척도 점수가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본 결과, 성별 및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다. 즉, 1, 2학년에 비해 3학년의 Mt 척도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에서는 심리적 부적응 문제가 감소하게 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관적인 불편감이 감소하게 되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해군사관학교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해군사관학교의 경우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이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퇴를 하거나

성적 및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퇴교시키는 절차가 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다 적응적인 학생들만 학교에 남게 되는데, 이로 인해 대학생활 부적응 지표인 Mt 척도 점수가 3학년에서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Mt 척도 점수의 학년 간 차이를 일반 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Mt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활적응 척도와 상관을 조사한 결과 총점과 -.40으로 비교적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하위척도들 중 정서적응과 -.39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Mt 척도가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부적응과 가장 관련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Mt 척도가 대학생활에서의 개인적, 정서적 적응의 어려움 및 높은 스트레스와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Merker & Smith, 2001; Stewart & Cairns, 2002). MMPI-2의 임상척도 중에서는 2번(D) 척도, 7번(Pt) 척도, 8번(Sc) 척도, 0번(Si) 척도와 -.30에서 -.32의 상관을 보였다.

으나, 인간관계적응 척도를 제외하고는 Mt 척도와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 Mt 척도가 대학생활 적응과 가장 높게 관련된 지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관계적응 척도의 경우 MMPI-2 임상척도 중 0번(Si) 척도와 -.31로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0번(Si) 척도가 대인관계에서의 불편감 및 소외감을 측정하는 척도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Mt 척도가 대학생활 부적응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선행연구들에서는 Mt 척도가 MMPI-2의 임상척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고 보고되었다 (Barthrow et al., 2004; Graham, Barthlow, Stein, Ben-Porath, & McNulty, 200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MMPI-2의 임상척도의 설명력을 통제 한 이후에도 Mt 척도가 4%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Mt 척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Barthrow 등(2004)이 지적했듯이, Mt 척도는 정서적인 혼란감 및 주관적인 불편감의 정도는 알려주지만, Mt 척도가 높다고 해서 이러한 주관적인 불편감이 어떠한 문제로부터 기인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대학생활 부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Mt 척도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 척도와 Mt 척도간의 관련성을 조사함으로써 Mt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대학생활적응 척도 또한 학생들의 자기보고에 의한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인 만큼 Mt 척도의 예측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적응 지표와의 관련성을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Mt 척도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들과의 관련성을 조사해 보았다.

## 연구 2

### 방 법

#### 연구 대상

2006년도에 해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년부터 3학년까지의 남녀 학생 40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여학생의 수가 40명으로 성별에 따른 자료의 분포 차이가 커서 자료 분석에서 1차적으로 여학생의 자료를 제외시켰다. 또한 성적 자료가 없는 학생 20명, 자질 및 인성 평정 자료가 없는 학생 7명, MMPI-2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 2명을 제외시키고 총 337명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이 중 MMPI-2 검사의 방어성을 측정하는 L, K, S 척도의 T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아 검사 결과를 타당하게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에 해당되는 19명(5.6%)의 자료를 제외한 총 318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최종 분석 자료에 포함된 학생은 1학년 102명(32.1%), 2학년 104명(32.7%), 3학년 112명(35.2%)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0.45세(SD=1.42)였다.

#### 측정 도구

#### 다면적인성검사 I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MPI-2)

연구 1에서 사용한 동일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 학교생활 적응지표

학교생활 적응지표로 총 4개의 평가 자료(평균학점, 품행점수, 자질평정, 인성평정)를 사용하였다. 첫째, 평균학점은 4.3을 만점으로 해당학기의 평균학점으로 학업적 성취 수준을 반영한다. 둘째, 품행점수는 위계질서가 뚜렷하며 규칙 및 규율의 준수가 중요시되는 해군사관학교의 중요한 학교생활적응 지표 중의 하나로 학기마다 100점이 부여된 후에 지각, 무단결석 등의 과실기록 점수들이 감해져서 산출된다. 셋째, 자질평정은 8개 중대의 중대장 평정치로 중대장이 각 중대 내의 40여명의 학생들에 대해 “해군장교로서의 자질 면에서 얼마나 적합한지”를 5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이다. 넷째, 인성평정은 중대장이 중대 내의 모든 학생들에 대해 “인성 면에서 얼마나 적응적인지”를 5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이다. 종합성적표에 기재되는 평균학점 및 품행점수에 더해 중대장에 의한 자질평정과 인성평정을 실시한 이유는 학생들의 사회적 적응 및 대인관계 적응 정도를 추가로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학생들 개개인을 가장 밀접하게 관찰하고 그들의 특성을 평정할 수 있는 사람이 중대장였으며, 각 중대장이 40여명의 학생들에 대해 평정을 해야 했기에 많은 문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성과 자질에 대해 각각 한 문항씩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 절차 및 방법

2006년 12월에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MMPI-2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검사 실시는 학년별로 수업시간에 이루어졌다. 학교생활 적응지표를 얻기 위해 MMPI-2 검사가 실시된 2006년 2학기의 종합성적부에서 평균학

점과 품행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2007년 1월 8개 중대의 중대장으로부터 각 중대원들의 자질 및 인성에 대한 평정을 요청하였으며, 평정 결과는 연구용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Mt 척도와 객관적인 학교생활 적응지표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학점, 품행점수, 자질평정, 인성평정 측정치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후, 대학생활 부적응 지표들에 대한 Mt 척도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대학생활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평균학점, 품행점수, 자질평정, 인성평정 측정치가 사용되었다. 이들 측정치의 학년 간 차이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 결과, 평균학점은 학년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과실기록에 해당되는 품행점수는 1학년에 비해 2, 3학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2,315)=95.79, p<.001$ ). 중대장 평정치인 자질평정과 인성평정에서는 모두 학년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Mt 척도와 대학생활 부적응 지표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Mt 척도는 평균학점과  $-.18$ 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Mt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학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행점수와 자질평정 및 인성평정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Mt 척도 점수가 대학생활 부적응 지표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활 부

표 4. 대학생생활 부적응 지표의 학년 간 평균 비교

	1학년 <sup>1</sup>		2학년 <sup>2</sup>		3학년 <sup>3</sup>		전체		F	사후검증 <i>scheffé</i>
	M	SD	M	SD	M	SD	M	SD		
평균학점	3.05	.51	3.12	.54	3.09	.52	3.09	.52	.53	
품행점수	75.84	13.47	57.35	9.63	57.90	9.45	63.42	13.72	95.79***	1<2, 1<3
자질평정	4.34	.64	4.22	.81	4.31	.70	4.29	.72	.81	
인성평정	4.64	.61	4.43	.80	4.57	.76	4.55	.73	2.13	

\*\*\*  $p < .001$

표 5. Mt 척도 점수와 대학생생활 부적응 지표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1. Mt 척도	1.00				
2. 평균학점	-.18***	1.00			
3. 품행점수	.07	.13*	1.00		
4. 자질평정	-.09	.22***	.13*	1.00	
5. 인성평정	-.05	.05	.16**	.58***	1.00

\*\*\*  $p < .001$ , \*\*  $p < .01$ , \*  $p < .05$

표 6. 평균학점에 대한 회귀분석

예측변인	B	S.E.	$\beta$	t	F	R <sup>2</sup>
Mt 척도	-.02	.01	-.18	-3.28***	10.77***	.03

\*\*\*  $p < .001$

적응 지표들 중 상관분석에서 Mt 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평균학점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Mt 척도 점수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평균학점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Mt 척도 점수는 평균학점에 대해 3.3%의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F(1,316)=10.77, p < .001$ ), Mt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학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18, p < .001$ ). 품행점수의 경우 Mt

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학년의 효과를 통제하고 상관을 구한 결과 -.12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학년을 통제변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Mt 척도 점수는 학년변인을 통제한 이후에 품행점수에 대해 1.0%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F(1,316)=62.334, p < .001$ ), Mt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품행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표 7. 품행점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예측변인	B	S.E.	$\beta$	t	F	R <sup>2</sup>	$\Delta R^2$
1단계	학년	-9.36	.85	-.56	-11.08***	119.22***	.27	
2단계	Mt 척도	-.23	.11	-.10	-2.06*	62.33***	.28	.01

\*\*\*  $p < .001$ , \*  $p < .05$

나타났다( $\beta = -.10, p < .05$ ).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Mt 척도가 학업성취, 품행문제, 자질 및 인성에 대한 평정을 포함하는 객관적인 학교생활 부적응 지표들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대학생생활 부적응 지표들이 학년 간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해 본 결과, 평균학점은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품행점수는 1학년의 품행점수가 2, 3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행점수는 학기마다 100점이 부여된 후에 과실기록 점수들이 감해져서 산출되는 점수인데, 과실행동이 심각한 문제행동들이기보다는 지각, 무단결석과 같이 사소한 규칙위반과 관련된 행동들로 사관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2, 3학년들의 경우 그러한 과실 행동들을 1학년들보다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학년 간 차이는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에서의 차이로 해석되기 보다는 과실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질평정 및 인성평정에서는 학년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평정을 한 중대장들이 학년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평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t 척도와 대학생생활 부적응 지표들 간의 상

관을 분석한 결과, Mt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학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auterbach 등(2002)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던 것처럼, Mt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Mt 척도 점수는 평균학점에 대해 3.3%로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유의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 상태 뿐 아니라 학업적 능력, 학교에 대한 만족도, 개인의 포부 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표인 만큼 본 연구에서 나온 낮은 설명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관분석에서 Mt 척도와 품행점수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품행점수에서 학년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 이러한 학년 간 차이가 대학생생활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에서의 차이이기 보다는 규칙위반에 대한 느슨해진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학년 간 차이를 통제하고 품행점수와 Mt 척도간의 상관을 확인해 본 결과  $-.12(p < .05)$ 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 변인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을 때에 Mt 척도 점수는 품행점수에 대해 1.0%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Mt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절제를 통해 학교생활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하

지만 2, 3학년의 품행점수가 1학년의 품행점수에 비해 낮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부적응 지표로 사용된 품행점수가 사소한 규칙위반들을 측정하고 있는 만큼 대학생활 부적응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명백한 행동상의 문제들을 부적응 지표로 사용하여 Mt 척도와와의 관련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생들의 사회적 적응 및 대인관계 적응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자질평정과 인성평정은 Mt 척도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8개 중대의 중대장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원들을 평정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관련 있어 보인다. 자질평정의 평균값이 중대별로 3.67점에서 4.75점으로 중대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F(7,310)=16.13, p<.001$ ), 인성평정의 평균값도 중대별로 3.72점에서 5.00점까지 중대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F(7,310)=30.44, p<.001$ ). 물론 중대별로 중대원들의 자질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평정자간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중대장이기는 하지만, 중대장에 따라 모든 중대원의 심리적 상태나 행동적 특징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대장이 있는 반면, 특별한 문제행동이 없으면 별로 주의를 두지 않는 중대장도 있어 중대장의 평가 기준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대별로 자질평정과 Mt 척도간의 상관을 산출한 결과, 8개 중대 중에 2개 중대에서는 자질평정과 Mt 척도간의 상관인  $-.32(p<.05)$ 로 나타나 Mt 척도와 자질평정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에서 자질평정 및 인성평

정이 Mt 척도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것이 실제 두 변인들 간에 관련이 없기 때문이기 보다는 평정의 객관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추후 연구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동료평정을 하게 될 경우 Mt 척도와 자질평정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MMPI-2의 보충척도로 포함되어 있는 대학생활 부적응(College Maladjustment: Mt)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Mt 척도가 대학생활적응, 특히 정서적 적응과 높은 부적상관을 보임으로써 대학생활 부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MMPI-2의 임상척도의 설명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Mt 척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연구 2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들과의 관련성을 조사해 보았는데, 학점 및 품행문제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긴 하였으나 그 설명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에서 Mt 척도의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Mt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대학생활 부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유용성을 지니는지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 있다. 또한 대학생활에서의 부적응 문제에 대한 주관적인 측정치가 아닌 학업성적 및 품행점수, 중대장에 의한 자질 및 인성 평정과 같은 객관적인 지

표들을 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Barthlow 등(2004)이 지적했듯이, Mt 척도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만, 정서적 어려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러한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학생활 부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Mt 척도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해군사관학교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인 대학생들에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다소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Mt 척도의 보다 유용한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학생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Mt 척도가 대학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두 검사가 동시에 실시되지 못해 검사간 상관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학생활적응 척도와 MMPI-2의 K 척도와 의 상관이 .28( $p < .001$ )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학생활적응 척도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척도일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추후 보다 다양한 대학생활적응 척도와 의 관련성을 조사함으로써 Mt 척도의 타당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대학생활 부적응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된 자질평정 및 인성평정이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8명의 중대장에 의해 실시되어 평정자간 일치도가 낮아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유용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대학생활 부적응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MMPI-2 검사가 실시된 시기와 대학생활 부적응 지표로 활용된 평균학점, 품행점수, 자질 및 인성평정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만큼, MMPI-2의 Mt 척도와 대학생활 부적응 지표들 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연옥, 이민희 (1995). 대학생활 부적응(Mt) 척도의 타당도 및 유용성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활연구*, 20, 1-13.
- 구본용 (1989). 학교장면에서의 심리검사의 활용.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활연구*, 7, 17-46.
- 김정기, 강연옥, 최명식 (1998).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의 타당도 및 변별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 179-188.
- 김중술, 한경희, 임지영, 이정흠, 민병배, 문경주 (2005). *다면적 인성검사 II 매뉴얼*. 서울: 마음사랑.
- 옥경희 (2001).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광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8, 21-39.
- 이상민, 남숙경, 이미경 (2009). 정신건강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대학상담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 363-384.
- Baker, R. W., St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arthlow, D. L., Graham, J. R., Ben-Porath, Y. S. & McNulty, J. L. (2004). Construct Validity of the MMPI-2 College Maladjustment (Mt)

- Scale. *Assessment*, 11(3), 251-262.
- Bishop, J. B. (1990). The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An agenda for the 90'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408-413.
- Bubbenzer, D. L., Zimpfer, D. G. & Mahrle, C. L. (1990). Standardized individual appraisal in agency and private practice: A survey.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12, 51-66.
- Butcher, J. N., Graham, J. R., Ben-Porath, Y. S., Tellegen, A., Dahlstrom, W. G., & Kaemmer, B. (2001). *MMPI-2(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anual for administration, scoring, and interpretation, revised edi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amara, W. J., Nathan, J. S., & Puente, A. E. (2000). Psychological test usage: Implications in professional psycholog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1, 141-154.
- Dworkin, L. R., & Lyddon, W. J. (1991). Manage demands on counseling services: The Colorado State University experi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402-407.
- Graham, J. R., Barthlow, D. L., Stein, L. A. R., Ben-Porath, Y. S., & McNulty, J. L. (2002). Assessing general maladjustment with the MMPI-2.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8, 334-347.
- Guinee, J. P., & Ness, M. E. (2000). Counseling centers of the 1990's: Challenges and changes. *Counseling Psychologist*, 28, 267-280.
- Kleinmuntz, B. (1960). Identification of Maladjust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7, 209-211.
- Kleinmuntz, B. (1961). The college maladjustment scale (Mt): Norms and predictivity valid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1, 1029-1033.
- Lauterbach, D., Garcia, M., & Gloster, A. (2002). Psychometric properties and Predictive validity of the Mt scale of the MMPI-2. *Assessment*, 9(4), 390-400.
- Merker, B. M. & Smith, V. J. (2001) Validity of the MMPI-2 college maladjustment scale.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4, 3-9.
- Robbins, S. B., May, R. M., & Corazzini, J. G. (1985). Perceptions of client needs and counseling center staff roles and func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641-644.
- Stewart, D. W. (1994). Using the MMPI-2 College Maladjustment Scale in a Canadian university setting.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28, 135-141.
- Stewart, D. W. (1996). Predicting counseling service utilization patterns with MMPI-2 college maladjustment scale.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30, 211-216.
- Stewart, D. W., & Cairns, S. L. (2002). Objective versus subjective evaluation of student distress at intake: Considerations for counseling center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3, 386-394.
- Svanum, S., Ehrmann, L. C. (1993). Screening for mal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An application of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to MMPI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0, 397-410.

원고접수일 : 2009. 08.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1. 04

게재결정일 : 2009. 11. 24

## **Validity of College Maladjustment(Mt) Scale of MMPI-2: Among Naval Academy Students**

<b>Jae-ho Yoo</b>	<b>Yong-doo Park</b>	<b>Kyung Joo Moon</b>	<b>Joo Young Lee</b>
Naval Academy	Yonsei University	Maumsarang	Yonsei University

Mt scale of MMPI-2 is an instrument to detect a high-risk group of students having college maladjustment problems, therefore to increase efficiency of therapeutic intervention.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Mt scale. In Study 1, 389 Naval Academy students completed MMPI-2 and Student Adap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 Mt scale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of  $-.40$  with SACQ, suggesting the validity of Mt scale. Even after controlling for clinical scales of MMPI-2, Mt scale explained additional 4% variances of SACQ. In Study 2, 318 male Naval Academy students completed MMPI-2. Four indexes of college maladjustment including GPA, conduct (fault) score, quality and personality rating were analyzed. In the following regression analysis, Mt scale significantly predicted GPA. Furthermore,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grade, Mt scale also significantly predicted conduct (fault) score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MMPI-2, Mt scale, College Maladjustment, Validity